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맞춤 지원 홈페이지 운영

정보 제공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맞춤형 정보 사전 열람 서류 준비 간편화
다양한 요구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창업·성장·안정·특화 4단계 체계 확립

강진군이 소상공인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했다. 이 홈페이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서류 보완과 추가 제출 때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수정 제출할 수 있어 서류 준비에 따른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다.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열람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23년 7월 개설하고, 2024년 6월 강진읍시장 종합동 내 센터 사무실이 마련됐다. 전문인력이 채용되면서 창업, 성장, 안정, 특화라는 4단계 체계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홈페이지는 강진군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소상공인지원센터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필요한 서류와 안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진군은 홈페이지 개설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 (061-430-3084)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소상공인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며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치매 공공후견 사업 추진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해남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치매 공공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견대상은 치매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학대·방임 등의 개인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공공후견인을 통해 병원 진료 예약 및 약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 관공서 등 서류발급 및 복지서비스 신청, 통장 등에 금자산 관리,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 비용 납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해남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9일 첫 후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후견심판청구도 진행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적극 발굴하고 공공후견인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양파 정식 농기계 연사회 양파 기계화 재배 확대 목표

무안군은 지난 20일 양파의 기계화율을 높이고 증가하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파 정식 농기계 연사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사회는 무안군 목탄면에서 전남도와 무안군 관계자, 양파 기계화 참여 협의회, 농기계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정식기 사용 요령 및 조작 방법 설명, 기계화 참여 농가 양파 기계 정식시연 순서로 진행됐다.

양파 정식 기계화는 인력 대비 높은 작업효율로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아 군은 양파 기계화 재배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재광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연사회는 무안군의 특산품인 양파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무안군은 양파 일관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지원 영암군, 지역상품권 60만원 지급

영암군이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에 정착지원금 60만원을 지급한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살며 취업·창업 하는 조건으로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우수 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법무부가 비자 특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비자 전환 후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주민(F-2-R, F-4-R비자)이 초기 거주비 등을 위해 쓰도록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나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음식점과 생활용품 판매점 등 1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전남농협, 김장 체험 교실 운영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가 지난 22일 화원농협(조합장 김복철) 김치체험학습장에서 목포 이지차일드유치원(이사장 박철홍) 원생 및 학부모 100여명과 함께 '김장 담그기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25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준비한 이번 행사는 유치원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김치 담그는 체험으로 김치의 전통적인 가치를 알리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화원농협에서 운영하는 김치 가공공장에서 배추 절단과 세척, 절임과 버무림 등 김치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견학하고 김치의 유래와 종류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조진용 기자



지난 21일 영암군 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홀몸 어르신 가정에서 폐가전과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 군서면지사협, 홀몸 어르신 가정 대청소 봉사활동

영암군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승준, 정명숙)가 지난 21일 대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25일 영암군 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성직전마를 주민의 건의를 받아 한 홀몸 어르신 가정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폐가전과 생활 쓰레기를 치우는 등 주거 대청소를 진행했다.

정명숙 군서면지사협 민간위원장은 "흔쾌히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지사협 위원님들의 헌신적 봉사활동에 감사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신안군, 동아시아 바닷새 서식지 보전 모색

제13회 국제철새심포지움

신안군은 지난 21일 신안 자은도에서 '제13회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움'이 일본, 홍콩 등 국내외 철새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국제철새심포지움은 세계의 철새와 서식지를 보호하는 국제기구인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아시아지부(BirdLife Asia) 노리타카 이치다(Noritaka Ichida) 전 대표의 '아시아 조류 보전의 과제와 협력방안'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미란 박사(바닷새 연구소 대표)의 '한국의 바닷새 해양플라스틱 섭식', 심바찬(Simba Chan) 선임

연구원(일본 조류연구소)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 세계 바닷새에 대한 새로운 위협', 황보연 박사(국립공원 조류연구센터장)의 '괘이갈매기에서의 미생물 질병 감염 현황' 등 주제발표로 1부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일본 바닷새 연구 권위자인 훗카이도 대학의 와타누키 유타카(Watanuki Yataka) 교수의 '해상풍력 발전소의 바닷새에 대한 전 세계적, 지역적 민감도 공간분포 연구', 이윤경 박사(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의 '빨래비갈매기의 번식성과 서식지 이용에 관한 9년간의 연구', 양통 유(Yat-Tung Yu) 회장(홍콩 야생조류협회)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바닷새

워킹그룹: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사례를 공유했다.

심포지움 다음날인 22일에는 부대행사로 2024년 한국조류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국가철새연구센터, 국립생태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에서 연구원과 교수, 대학원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50편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동안 신안군은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철새와 서식지 보전,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며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바닷새 보전을 위한 노력은 물론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ji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